

‘체질 개선’ KIA, 상위권 도약 속도 낸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체질 개선에 성공한 ‘호랑이 군단’이 상위권 싸움을 위해 달린다.
수도권 9연전에 나선 KIA 타이거즈가 문학을 돌아 고척, 잠실로 간다.

24일부터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하는 KIA는 27일에는 잠실로 이동해 ‘2위’ LG 트윈스를 만난다.

주말 3연전은 KBO 팬들의 시선이 쏠리는 ‘빅매치’가 될 전망이다.

LG는 한화 이글스와 1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난적, 가장 적은 5경기를 소화한 상대이기도 하다. 남은 시즌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두 팀은 상대 순위의 키를 쥐고 있다.

지난주 KT 안현민에 이어 또 다른 강력한 ‘신인왕 후보’ LG 좌완 선발 송승기와와 흥미로운 대결도 관전포인트다.

최근 KIA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KIA는 지난주 안방에서 만난 KT 위즈를 상대로 스윙승을 거뒀고, SSG 랜더스와의 맞대결에서는 비로 한 경기를 쉰 뒤 1무 1승을 수확했다.

KIA는 21일 9회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아쉬운 5-5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22일에는 9회 위기를 넘고 5-4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6연승을 이었다.

5위 삼성 라이온즈와 1경기 차 4위가 된 KIA는

홈런 터지고 마운드 ‘셋별’ 활약

지난주 시즌 첫 6연승으로 4위

원정 9연전 두번째 키움과 격돌

네일·김도현 쉬고 윤영철 선발

‘3.5게임차’ LG와 주말 빅매치

최형우·박찬호 ‘울스타 베스트 12’

3위 롯데 자이언츠를 2.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멀게만 보이던 2위로 3.5 경기 차로 좁혀졌다.

마운드의 새로운 전력과 타선의 경험으로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지난주 KIA는 성영탁과 이호민이라는 ‘셋별’들의 배짱 있는 활약으로 연승을 이었다. KIA 마운드에는 데뷔전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고졸 루키’ 김태형도 있다.

신인 선수들의 힘과 패기로 불펜 중심을 잡은 KIA는 선발진에서도 젊은 피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전력 극대화를 위해 선발진 재정비가 이뤄진다. 쉽지가 않다.

제임스 네일이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엔트리에서 빠진다. 로테이션상으로 24일 김도현이 출격해야 하지만 윤영철이 먼저 마운드에 올라 키움 김윤하를 상대한다.

토종 선발진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김도현은 넉넉한 휴식 뒤 4승 사냥에 나서게 된다.

타석에서는 베테랑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특히 ‘에비 FA’ 최원준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린다. 최원준은 지난주 19타석에서 9개의 안타를 생산하면서 0.474의 타율을 기록했다. 주간 타율 전체 3위, 팀 내 1위다.

자신의 강점인 어깨도 제대로 보여줬다. 최원준은 21일 레이저 송구로 끝내기패 위기를 막는 등 올 시즌 중요한 순간에 홈보살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민은 ‘기복’이다. 최원준은 올 시즌 매 경기 타석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주 환상적인 보살 실력을 보여줬지만 타구 판단에서 아쉬운 장면도 나왔다.

공격과 수비는 물론 주루에서도 최원준의 부지런한 활약이 필요하다.

부상병동을 지키고 있는 두 축이자 ‘울스타 베스트 12’에 빛나는 박찬호와 최형우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내야의 사령관인 박찬호는 ‘임시주장’까지 맡아 역할이 막중하다. ‘판형’ 최형우는 올 시즌 KIA에서 가장 믿음직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주에도 2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리는 등 타석의 핵심이다.

최형우를 중심으로 고르게 타진 홈런이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지난주 위즈덤이 모처럼 홈런타자가 돼 그라운드를 돌았고, 오선우와 김석환 그리고 박민도 홈런을 기록했다. 특히 김석환은 대타 역전 결승 투런을 장식했고, 박민은 5년 차에 데뷔홈런을 신고하면서 극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윤영철이 24일 키움전 선발로 나와 7연승 잇기에 나선다. KIA는 휴식 차원에서 제임스 네일을 말소하고 김도현의 등판 순서를 바꾸는 등 마운드 재정비에 나섰다. <KIA 타이거즈 제공>

‘빛자루 퍼터’ 이민지 LPGA 메이저 3승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20개월만에…최혜진·이소미 8위

호주 교포 이민지가 20개월 동안 이어졌던 우승 갈증을 메이저 대회에서 씻었다.

이민지는 23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즈 랜치 이스트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12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를 쳐 합계 4연타파 284타로 우승했다.

교포 오스턴 김(미국)과 켄네디 완나센(태국) 두 명을 3타 차로 따돌린 이민지는 2023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20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메이저 대회 우승은 2021년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2022년 US여자오픈에 이어 세 번째다.

이제 8월 AIG 여자오픈 또는 내년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한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3승을 올린 호주 선수는 카리 웹, 켄 스티븐슨에 이어 이민지가 세 번째다.

우승 상금 180만달러를 받은 이민지는 단숨에 상금랭킹 1위(261만124달러)로 올라섰다.

지난해 상금랭킹 43위로 2015년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이민지는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다시 최정상급 선수로 부활했다.

지난해 퍼팅 부진에 시달렸던 이민지는 특히 이번 시즌부터 들고나온 빛자루 형태의 브롬스틱 퍼터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라 주목받았다.

오스턴 김과 완나센은 이날 나란히 4연타파 68타를 때리는 눈부신 경기를 펼쳤지만, 9타 차를 뒤집기에는 18홀로는 부족했다.

이민지, 티미쿤과 함께 챔피언십에서 경기한 최혜진은 버디 2개와 보기 4개로 2오버파 74타를 쳐 공동 8위(3오버파 291타)를 차지했다.

최혜진은 세브론 챔피언십 공동 9위, US여자오픈 공동 4위에 이어 이번 시즌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분파 72타로 잘 버틴 이소미도 최혜진과 함께 공동 8위에 올라 마이어 클래식 3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톱10에 입성했다.

황유민은 공동 19위(6오버파 294타), 방신실은 공동 23위(7오버파 295타)의 성적을 남기고 귀국 길에 올랐다. /연합뉴스



22일 호주 교포 이민지가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PGA 프리스코 필즈 랜치 이스트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2025에서 우승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변준수 ‘홍명보호’ 첫 승선

7월 E-1 풋볼 챔피언십 출전

광주FC의 ‘철벽’ 변준수(사진)가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로 오른다.

대한축구협회가 7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풋볼 챔피언십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변준수도 김문환(대전), 김주성(서울), 김태현(가시마), 김태현(전북), 서명관·조현택(이상 울산), 박승욱·이태석(이상 포항)과 수비수 명단에 포함되면서 ‘홍명보호’에 승선했다. 첫 성인 국가대표팀 발탁이다.

올 시즌 17경기에 나온 변준수는 광주의 주전 센터백이다. 철벽 수비로 광주의 승점을 지키는 변준수는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3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고 있다.

변준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K리그 시도민구단 첫 8강행을 이끌었다. 변준수는 대회가 끝난 뒤 AFC가 선정한 ‘Future Stars of the Season’ 최종 1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리그에서 클리어링 3위(101개), 공중 경합 승리 10위(67개)인 변준수는 패스 횟수 13위(788개), 전방패스 횟수 5위(353개)를 기록하는 등 광주 빌드업의 핵심 자원이기도 하다.

변준수는 “처음 성인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다. 광주FC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태극마크를 단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남녀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7월 7일부터 16일

까지 용인, 수원, 화성 등 경기도 3개 도시에서 열린다.

‘홍명보호’는 7월 오후 8시 중국과 대회 개막전을 치른다. 이어 11일 오후 8시 홍콩, 15일 오후 7시 24분에는 일본과 대결한다. 남자부 경기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회 명단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구성됐다.

남자대표팀 23명 중 3명이 J리그이고 20명은 K리그 소속이다. K리그2 인천의 김동현을 제외한 19명은 K리그1에서 활약하고 있다.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는 변준수와 함께 두 명의 김태현과 서명관,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 이호재(포항)까지 총 7명이다.

한편 광주 금호고 출신의 나상호(마치다)는 2023년 6월 이후 2년 만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도청 김향은, 아시아펜싱선수권 단체 銀

전남도청 김향은이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끝난 ‘2025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김향은은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울산시청), 임태희(계룡시청)와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준결승에서 일본을 45-27로 꺾은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만난 중국과의 대결에서는 38-41로 점수를 내주며 은메달을 얻었다.

이번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차지하

며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송세라는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중국 양진원을 무찌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도정동(대구시청)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중국 선전펑을 이기며 1위에 올랐다.

여자 에페 단체전을 비롯해 남자와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각각 은메달이 나왔다.

김정미(안산시청)는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윤정현(국군체육부대)은 남자 플러레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했고 남자 에페 대표팀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다민 기자 kdi@

광주체고,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 금1·동1

광주체고 배드민턴부가 ‘2025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제33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발전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고 여서영(1년)이 현수민(전대사대부고 3년)과 호흡을 맞춰 고등부 혼합복식 금메달을 따냈다.

4강에서 김태현(정주고)·한승연(전주성심여

고)을 2-0(21-9, 21-19)으로 꺾은 여서영과 현수민은 결승에서 만난 강승현(구미시체육회)·곽민아(정송여고)와의 대결에서도 2-0(21-17, 21-18)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나라(3년)·김나연(2년)은 여자고등부 개인복식 4강에서 문인서·한승연(이상 전주성심여고)에 0-2(21-23, 13-21) 패하며 동메달을 얻어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